

야고보회

야고보회

본당 공동체에서의 봉사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2019년경 30-40대 가정을 주축으로 야고보회가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야고보회가 자리를 잡아가려던 시점에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활동이 없었으나 앞으로 더 많은 봉사와 친목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야고보회 가정 목록

- 김동근 (사도요한), 송진영 (마리스텔라), 김태오 (테오도르), 김태린 (리오바)
- 최두철 (요셉), 임선미 (세실리아), 최윤진 (아나스타샤)
- 나채국 (제노), 김민주 (이스베리가), 나제이 (퀸틸라)
- 한철희 (필립보), 한지혜 (크리스티나), 한서윤 (올리비아), 한정우 (가브리엘)
- 이광재 (시몬), 소나영 (안나), 이동윤 (프란치스코), 이소윤 (글라라)
- 한정훈(요한), 강민선 (베로니카), 한지호
- 윤준희 (안드레아), 구윤미 (올리아), 윤리아나, 윤조엘
- 신동훈 (안토니오), 황지현 (스텔라), 신우주 (레오)



2019년 5월 식사봉사



2022년 십자가의 길 봉사



2022년 헌금 집계 봉사

야고보 사도

주님의 열두 제자중 야고보라 불린 제자는 두명이었으며, 서로 구분하기 위해 큰 야고보 (제배대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이라 불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두터워 엄격하고 경건한 수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으며, 외모를 가꾸지 않았고, 긴 겂옷과 망토만 몸에 걸치고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생활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었고, 또한 유대인으로서의 율법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야고보 서간

야고보 서간은 작은 야고보가 12지파에 보낸 편지로 신약성경 중 한 권입니다.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모두 5장으로 되어있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서간 2장에서 믿음과 실천을 강조한 부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서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합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드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드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는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2장14절-26절)

연중 제23주일

2022년 9월 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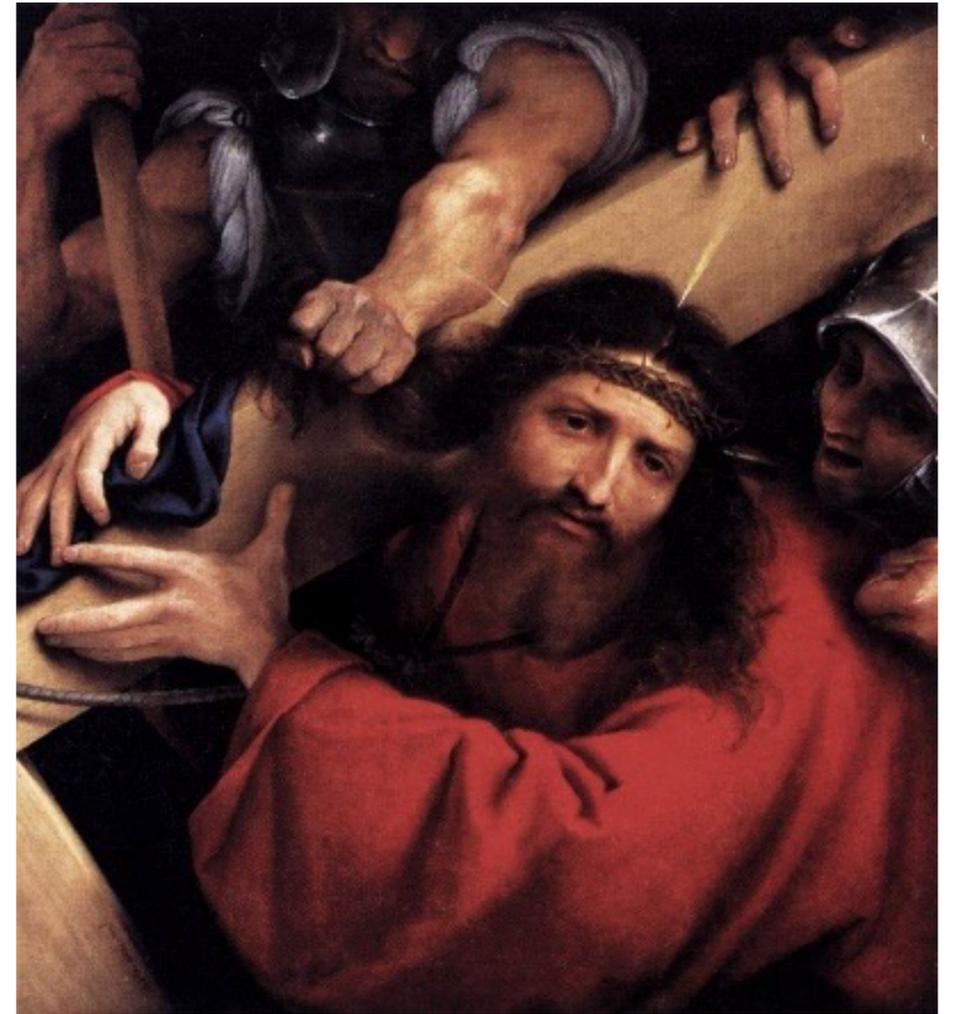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로렌초 로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1526
루브르 박물관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지혜서9,13-18
- #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9L-10,12-17
- # 복음 환호송 ○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주소서.
- # 복음 루카 14,25-33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 # 성가번호 입당 48 봉헌 210 성체 175 파견 286

- 미사지향 (연미사)**
 - 이택면(예로니모) 신부님 - 임 마르코, 임스텔라, 이윤석(리처드) 가족, 안을봉(요셉) 가족, 김금자(유리아나), 김삼식(베드로) 노스브런스윅 구역, 변태용(요셉) 황분숙(비비안나)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유 베로니카
 - 이 발바라
 - 최복자(레지나)
 - 김진철(요한)
 - 김경희(수산나)
 - 김명자(헬레나)
 - 유계준(요셉)
 - 이 그레고리오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이석중(스테파노) - 썸머셋구역, 박재영(요아킴)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한지혜(크리스티나) 변태용(요셉)
 - 김순옥(울리아)
 - 김용무(데레사)
 - 정 데레사
 - 정 데레사
 - 먼로 구역
 - 변인순(엘리사벳)
 - 이 발바라
 - 이 발바라
 - 이서형(요안나)
 - 김도용(스테파노)
 - 임영자(안나)
 - 채로운(로운)
 - Ava Klaus
 - 윤 바오로, 김 에스더 가족
 - 김종화(아가다)
 - 오경선(원선시오)
 - 최 헬레나 가정
 - 박덕목(시몬)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8/21).....\$1,311
 - 주일 헌금 (8/28).....\$1,179
 - 2차 헌금 (8/28, Mission CO-OP).....\$4,935
 - 교무금..... 김순옥(7-9) 안을봉(7-8)
 - 감사헌금.....최 골롬바(\$5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 일시: 2022년 9월 11일(주일) 오후 2시
 - 참가비: \$20(티켓을 구입하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 1등추첨: 메주고리에 성지순례권 (이외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소: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 Henry Hoebel 파빌리온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 문의: 사무실 또는 KCB 718-888-9130

- 2차 헌금**
 - 9월 11일 : Peter's Pence (교황님 세계 선교사업 지원)
 - 9월 18일: 유틸리티

-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중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사무실 업무 시간**
 - 사무실 업무시간이 화-금, 오전10시-오후3시 기존 업무시간으로 복귀됩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안내**
 - 9월 11일(주일)에는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장 개인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732-258-5998)

- 기획 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에디슨 한인성당 성모공원 조성기금 마련 골프대회 안내**
 - 일시: 9월 5일 월요일 (Labor Day) 12시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 및 후원 문의: 오 토마스 (Thomas Oh) 917-662-8353
 -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선생님 모집**
 -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 (K~8 grade)와 유스그룹 (9~12 grade)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 주일학교 학생 모집**
 - 주일학교가 9월 18일에 시작합니다.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OLM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 지난 주 선교 기금 모금에 피스브릿지 구역에서 \$100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독서 지혜서9,13-18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흠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9L-10.12-17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종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4,25-33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탐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저는 이미 화살 기도 형식으로 매 순간 잘못된 것을 고백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해성사를 하러 갈 때면 이미 용서 받은 것을 다시 고백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백해야 할 사소한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고해성사의 다섯 단계는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입니다. 만약 사소한 것을 너무 많이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셨다면, 성찰 단계에 더욱 많이 머물러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찰 단계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찾고, 찾은 죄의 경중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죄'와 '소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죄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계명 상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대죄를 발견했다면 이를 고해성사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죄의 기준에 못 미친다면 소죄가 됩니다. 소죄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권고되지만, 미사의 통회 예식 등을 통해 용서를 청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소한 죄'들이 교회가 말하는 소죄가 맞는지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면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할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청하는 방법 중 가장 효험(?)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원 성취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욱 완벽한 기도를 찾아 헤맬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 봅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실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순수하고 최종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한다면, 더욱 자주 만나서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테니 좋겠지요?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30일 피정을 통해 영신수련을 할 때, 기도 때마다 분명한 지향을 두고 청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 하는 것이 매번 청해야 하는 지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과 더 자주, 더 깊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면, 말씀해주신 방법들은 참으로 추천할만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하는 바가 이루어질 확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겠습니까? 동시에 이것도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사실은 상대방인 하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지요!